

「중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허영환*

呂濟民교수의 발표문(「중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은 비교적 짧은 글(4,200여 漢字)이지만 내용은 충실한 편이다. 내용은 1949년(중화인민공화국 건국)부터 올해까지 50년 동안 어떤 변화와 발전을 보였는가에 대한 고찰이 70%를 차지하였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망이 30% 정도를 차지하였다. 글 전체를 항목별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빨리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는 1998년 4월에 열린 제4회 대학박물관협회 학예연구위원회 발표논문 가운데 하나인 「中國의 博物館 - 形成과 發展을 中心으로」(오일환, 경희대박물관, 『古文化』 제53집, 1998. 12)으로부터 얻은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오일환의 논문은 중국의 박물관과 문화재, 중국박물관의 유형과 발전,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박물관 등으로 이뤄져(20쪽)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일환은 그의 글에서 呂교수의 논문 「中國博物館事業一百年」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 주었지만 呂교수의 이번 논문은 좀 더 참신한 것이어서 좋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은 呂교수 논문의 항목 순으로 한 것이다.

1. 博物館과 博物院의 명칭은 무슨 기준에 따라 정하는가? 역사에 따르는가? 소장품의 내용에 따르는가? 규모에 따르는가?
2. 왜 국공립의 미술관, 특히 회화관은 없는가? 南陽 漢畫館 정도뿐이라고 알고있는데 ...
3. 私人(立)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개인이 설립하고자 할 때 정부는 어떤 도움(또는 규제)을 주는가? 1999년 5월 현재 北京에는 몇 개의 사립박물관(또는 미술관)이 있는가? 한국에는 100여개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있는데 ...
4. 국가문물국에서 관할하는 1,331개 박물관 외의 박물관(6백 여개)은 누가 어떤 형태로 관할하는가? 또 어느 지방(또는 도시)에 많은가?
5. 문화예술류 박물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6. 한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보·보물·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중국은 어떤기관에서 진귀문물·귀중문물·보통문물 등 등급을 정하는가? 중국에서 1급 진귀문물은 몇 점(건)이나 있는가?
7. 중국박물관학회는 1982년 성립 이후 활동이 활발한데 회원 수는 몇 명이며 회원자격은 무엇인가?
8. 중국에서 박물관 관리학과는 몇 개 대학에 있으며, 언제 생겼으며, 몇 년제이며, 졸업 후에는 바로 학예원자격을 주는가?
9. 중국박물관의 당면과제를 관리체제의 개혁이라 했는데 어떻게 개혁할 생각인가?
10. 박물관법은 언제쯤 제정될 것 같은가? 한국은 금년 초에 법안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